

高麗時代 瓷器盞托 研究*

이윤진

- I. 머리말
- II. 盞托의 개념과 제작배경
- III. 瓷器盞托의 기형과 문양
- IV. 瓷器盞托의 양식적 특징과 변화
- V. 맺음말

I. 머리말

盞托이란 굽이 있는 접시형태로 盞을 받치는데 사용되었으며, 잔과 함께 한 벌을 이룰 때에는 托盞이라 불린다. 잔탁은 기본적으로 다른 기물의 받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받침부위인 盞座의 존재가 잔탁의 기물적 역할을 나타내주며, 전체적인 형태까지도 결정짓는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 및 장식의 조형적 특징을 지닌 잔탁은 고려시대에 瓷器製·金屬製·木製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는데, 현존하는 유물 중에는 자기제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기제 잔탁의 경우 高麗時代 전시기에 걸쳐 확인되어 高麗瓷器의 제작과 사용, 나아가 고려시대 음식문화의 한 측면을 이해 할 수 있는 좋은 예로서 주목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고려시대 자기

* 본고는 필자의 「高麗時代 瓷器盞托 研究」(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를 기초로 일부 새로운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잔탁을 독립된 개체로 주목한 본격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¹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려시대 자기잔탁을 대상으로² 먼저 국내외 문헌기록과 회화자료를 통해 용어 및 용례, 제작배경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유적출토품 및 현전하는 잔탁의 기형과 문양을 분류해보고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고려시대 자기잔탁의 양식적 특징과 변화양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고찰은 고려시대에 특수하게 활용되었던 잔탁에 대한 새로운 도자사적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盞托의 개념과 제작배경

1. 기록을 통해 살펴본 잔탁

잔탁의 명칭은 중세 중국과 한국의 문헌기록 및 명문자료를 통해 ‘茶托子’·‘茶托’·‘盞盞(琖)’·‘盞盤’·‘盞臺’·‘臺盞’·‘盞托’·‘盞橐(橐)’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들 용어는 ‘托’이나 ‘臺’, ‘盤’ 등과 같은 ‘받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잔을 받치는 용도의 잔탁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잔탁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中國 唐代 李匡乂의 『資暇集』에서 확인된다. “茶托子是建中年間(780~783년) 宰相 崔寧의 딸에 의해 시작되었다. 뜨거운 찻잔에 받침이 없어 손을 데이자 접시에 잔를 올려 마셨는데, 곧 기울어졌다. 이에 접시 중앙에 밀납으로 고리를 만들어 올렸더니 잔이 흔들리지 않았다...”³라고 하여 잔좌가 마련된 잔을 받치는 용도로서의 잔탁 시원에 대

1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려시대 잔탁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종민,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홍익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2), pp. 169~172; 임진아, 「고려청자에 보이는 北宋·遼代 자기의 영향」(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p. 77; 정신옥, 「11세기 말~12세기 전반 高麗靑瓷에 보이는 中國陶瓷의 影響」, 『美術史學』 21(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7), pp. 58~59; 김은애, 「高麗時代 打出工藝品 研究」(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pp. 50~52; 김은정, 「高麗時代 金銀器 研究」(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pp. 21~24, pp. 55~62; 윤희봉, 「고려청자에 보이는 금속기명의 영향」(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pp. 64~66; 정상기, 「고려시대 금속제와 청자탁잔의 비교연구」, 『충청지역 도자연구』(서경,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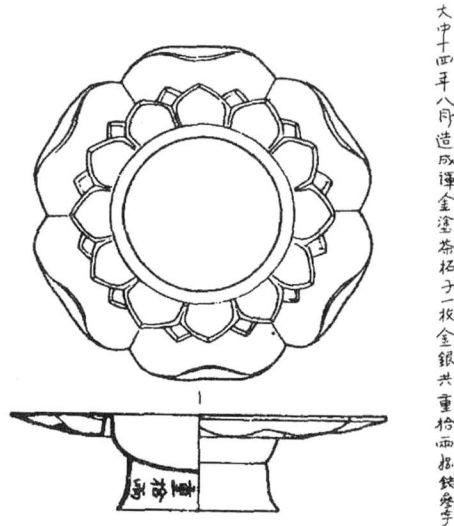
2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잔탁의 범위는 받침으로서의 사용이 확실한, 즉 잔좌가 형성되어 있는 기물로 설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3 李匡乂, 『資暇集』 卷下 “茶托子 始建中相崔寧之女 以茶杯無衬 病其燙指 取碟子承之 既啜而杯傾 乃以蜡环碟子之 央 其杯遂定…”

해 파악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난 다탁자는 唐代 和平門 유적에서 굽 내벽에 ‘茶拓子’라는 명문이 확인되는 유물을 통해 그 형태를 알 수 있다(도 1).⁴

北宋代 孟元老의 『東京夢華錄』에는 술을 마시는 데 사용되는 기물의 언급에서 ‘盤盞’이 등장하는데,⁵ 이러한 반잔이라는 명칭은 북송 徽宗代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이하 『高麗圖經』) 중 고려 반잔의 형태를 설명한 기록에서도 보이며,⁶ 『高麗史』에서도 북송에 보내는 국신물의 목록 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⁷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고려와 북송에서는 11~12세기에 걸쳐 ‘盤盞(錢)’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高麗史』에서는 元에 보냈던 국신물로 각각 ‘盞盤’과 ‘臺盞’이 등장한다.⁸ 모두 잔과 함께 받침을 의미하는 ‘盤’, ‘臺’와 같은 글자가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같은 의미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盞托’이라는 명칭은 송대 이후의 문헌기록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程大昌의 『演繁露』에서는 唐代 李匡父의 기록을 들어 잔탁의 시원을 언급하였다.⁹ 즉, 唐代 崔寧의 딸이 고안한 다탁자와 동일한 기물을 송대에서는 잔탁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후 清代 朱



도 1 <銀製鍍金花形盞托>, 唐 大中14年(860년), 높이4.5, 중국 陝西省 和平門 출토

4 和平門유적 출토 銀製盞托 중 한 점에는 굽 내벽에 “大中十四年八月造成渾金塗茶拓子一枚金銀共重拾兩捌錢叁字”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馬得志, 「唐代長安平康坊出土的鍍金茶拓子」, 『考古』 1959-12(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齊東方, 『唐代金銀器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p. 118, p. 182.

5 孟元老, 『東京夢華錄』卷4 會仙酒樓 “注碗 盤盞 大抵都人風俗奢侈度量稍寬 凡酒店中不问何人 止兩人對座飲酒亦須用注碗一副 盤盞兩副 果菜碟各五片 水茶碗三五只 即銀近百兩矣”

6 徐兢, 『高麗圖經』卷30 器皿條 盤盞 “盤盞之制 皆似中國 惟盞深而鉞斂 舟小而足高 以銀爲之 間以金塗 鍍花工巧 每至勸酒 則易別杯 第量容 差多耳”

7 『高麗史』世家9 文宗26年(1072年) “…金盤盞二副共重四十兩紅梅花羅夾複封全共用紅梅花羅帕外幕…”; 『高麗史』世家9 文宗34年(1080年) “…省所上進金合二副盤盞二副注子一副…”

8 『高麗史』世家23 高宗18年(1231年) “…乙卯以金酒器大小盞盤各一副…”; 『高麗史』世家30 忠烈王19年(1293年) “…乙巳王及公主持詣皇太子眞金妃子闕闡眞殿贈金鍾金盃各一事白銀滿鍍鍍金臺盞一雙…”

9 程大昌, 『演繁露』卷15 “…臺盞亦始於盞托 托始於唐 前世無有也 崔寧女飲茶 病盞熱熨指 取椀子融蠟 象盞足大小而環結其中 眞盞於蠟 無所傾側 因命工髹漆爲之 寧喜其爲 名之曰托…”

琰의 『陶說』에서도 잔탁의 시원을 『演繁露』의 기록을 빌려 최녕의 딸이 고안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다탁자로 불리던 기물의 명칭이 잔탁으로 정착되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¹⁰ 고려의 『重添足本禪苑清規』(이하 『禪苑清規』)¹¹에서도 茶湯禮法에 사용되는 기물 중 ‘蠶囊(囊)’이 등장한다. ‘蠶囊(囊)’의 ‘囊(囊)’은 ‘托’과 동음어로 기록을 살펴보면, 차를 담아 마시는데 사용되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¹² 이처럼 여러 기록들을 통해 파악된 잔탁의 명칭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托’이나 ‘臺’, ‘盤’과 같은 ‘받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托’은 ‘囊(囊)’이나 ‘拓’과 같은 동음의 글자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당대 이광예의 ‘茶托子’를 시작으로 송대에 ‘蠶托’이 등장하여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잔탁은 蠶·碗·杯와 같이 차나 술을 담아 마시는데 사용하는 飲用器의 받침이므로 이때의 잔탁 역시 음용기라고 할 수 있다. 또 앞서 여러 문헌자료에서 잔탁의 의례 및 국신물로서 사용된 용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중 『禪苑清規』를 살펴보면 잔탁은 모든 예법에 사용된 것은 아니며, 堂頭煎點·僧堂內煎點·法圈及入室弟子特爲堂頭煎點 등 住持가 참석한 사원內 대중 상호간에 행해지는 의식에서만 주로 사용되었다. 이외의 의식에서는 ‘茶蠶’이나 ‘蠶’만이 사용되어 의식의 성격과 참여인물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에 구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기물과는 구별되는 잔탁의 위상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잔탁의 형태적 특징을 묘사한 내용이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앞서 唐代 李匡乂의 『資暇集』에서는 접시 중앙에 잔과 같은 원형의 밀랍을 녹여 잔좌를 만든 잔탁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고, 宋代 審安老人의 『茶具圖贊』에서도 기물을 의인화한 표현과 삽화를 통해 잔탁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¹³ 또 徐兢은 『高麗圖經』에서 고려 잔탁의 형태가 중국의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⁴ 이외에 清末 寂園叟의 〈咏陶詩〉 汝窯托杯行 중 잔탁을 묘사한 구절에서도 “탁의 형태는 三層으로 나누는데, 그릇의 지탕을 돕는다. 편평한 대는 새의 날개와 같이 뻗

10 朱琰, 『陶說』說器 卷5 唐器 “蠶托 《演繁露》: 台蠶始于蠶托 托始于唐 蜀相崔寧女飲茶 病蠶熱燙指 取碟于融蠟 象蠶足大小 而環結其中 置蠶于蜡 無所傾側 因命工髹漆爲之 寧喜其爲名之曰托”

11 선종에서 총림생활에 필요한 행위규범을 정리한 清規書로서 중국에서는 唐代 百丈禪師에 의해 『百丈清規』가 정리되면서 이후 청규서의 근본이 되었다. 宋 崇寧 3年(1103年) 宗頤禪師는 古清規의 뜻을 다시 살리고자 『禪苑清規』를 제정하였고, 이후 원본에 瀧水法 등을 새로히 첨가하여 간행된 宋本을 고려 고종 41년(1254年)에 高麗分司 大藏都監에서 重雕覆刻한 것이 고려판 『重添足本禪苑清規』이다. 『선원청규』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를 참고하였다. 최법혜 역주, 『고려판 선원청규 역주』(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2).

12 『禪苑清規』 第一 赴茶湯 “當頭에 特爲의 人, 오로지 主人을 보고 顧揖을 마치고 後후에 上下間에 揖하고 茶를 喫한다. 茶를 불지(吹) 말라. 蠶을 흔들지(掉) 말라. 呼呻(공공거릴)하여 소리를 내지 말라. 蠶囊을 놓으며 敲磕(부딪히는 소리를 냄)하지 말라.” 최법혜 역주, 앞의 책(2002), p. 114.

13 審安老人, 『茶具圖贊』 “漆罍秘閣 承之 易持 古臺老人 危而不持 顛而不扶 則吾斯之未能信 以其弭執熱之患 無坳堂之覆 故直輔以寶文而親近君子”

어있으며, ...윗입술은 약간 벌어졌다.”라는 언급을 통해 편평한 탁 구연부에 잔모양의 잔좌를 갖는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¹⁵ 이와 같은 여러 문헌기록의 묘사에서 잔탁은 기본적으로 접시형의 몸체에 굽이 높고 내저 중앙에는 잔좌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중국과 한국의 전세품 및 유적출토품들의 형태와도 일치한다.¹⁶

2. 잔탁의 제작배경-차문화의 성행과 자기제작기술의 발전

잔탁은 앞서 문헌기록을 통해서 唐代 崔寧의 딸이 고안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잔탁이라는 기종이 만들어진 직접적인 계기를 알려주는 일례이며, 잔탁이 본격적으로 제작되고 실생활에 사용되기까지는 적절한 사회적 수요와 기술적인 바탕이 있어야 가능했을 것이다. 그

¹⁴ 주6참고

¹⁵ 寂園叟, 〈咏陶寺汝窯托杯行〉“…托形分三層 穩將杯度閣 重台似翼張…上脣既微參…”

¹⁶ 기물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잔탁의 세부는 받침으로서의 기능에 맞춰 제작되었는데, 현재 이러한 세부 명칭은 통일되지 않아 기물의 형태를 설명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논의 전개를 위해 문헌기록에서의 기물 묘사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참고로 〈표〉과 같이 잔탁의 세부에 대한 용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잔탁은 크게 잔좌와 탁 구연부, 탁 굽의 세 부분으로 나뉘며, 잔좌는 잔이 놓이는 받침 부위로 잔모양의 것과 돌출된 형태가 있다. 이들은 세부구조가 완전히 달라 하나의 기종으로 묶기에는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니면서 같은 기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잔탁의 형태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Ⅲ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표〉잔탁의구조와세부명칭

구조	<p>잔좌 : 잔탁의 기형을 결정짓는 주요 부분으로 잔을 올리는 위치</p> <p>탁 구연부 : 접시형 몸체의 구연부</p> <p>탁 굽 : 접시형 몸체의 굽 부분</p>
세부	<p>㉠ 잔모양 잔좌의 구연부</p> <p>㉡ 잔모양 잔좌의 측면</p> <p>① 돌출된 잔좌의 윗면</p> <p>② 돌출된 잔좌의 측면</p> <p>③ 탁 괴입부</p>

리므로 본 장에서는 중국에서 등장한 잔탁이 어떠한 사회적·기술적 배경 하에 국내에서 자기 잔탁으로 생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특히 唐代 이후 차문화의 성행과 이에 수반되는 茶道具의 사용에 주목하여, 차를 우려내는 飲茶法의 변화 등을 통해 제작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도 2 張世卿墓(M1), 遼 天慶六年(1116年),
중국 內蒙古 下八里 宣化遼墓群

唐代 불교발전과 陸羽의 倡導, 禁酒令, 科擧制度, 貢茶制度 등에 힘입어 흥성한 차문화는 8~9세기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¹⁷ 10세기 五代~北宋代에 이르면 그 수요가 황실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급증하여 차문화의 향유계층이 다양해지고 차가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는다. 飲茶風習의 성행과 함께 차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唐 德宗 建中년간 차는 처음 과세의 대상이 되었으며, 宋代에는 국가의 전매품이 되었다. 또한 陸羽의 『茶經』을 필두로 여러 다서들이 출간되었고, 차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다도구들이 제작되었는데 잔탁도 그 중 하나이다. 이는 宣化遼墓(도 2),¹⁸ 白沙宋墓¹⁹의 고분벽화나 傳 唐 閻立本の 〈蕭翼賺蘭亭圖〉(도 3)²⁰, 傳 五代 顧闳中的 〈韓熙載夜宴圖〉(도 4)²¹ 등 회화자료에 표현된 잔탁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²²

차는 이웃한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는데 7세기 善德女王(632~647년 재위)때 이미 국내에 차가 있었고, 興德王 3年(828년) 大廉이 唐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심었다고 한다.²³ 차문화는 동시대 선종의 유입과 맞물려 수행승과 유학생들이 唐에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확

17 김진숙, 「唐代的 飲茶文化」, 『한국차학회지』 Vol.13 No.1(한국차학회, 2007); 조기정, 「唐代 茶政 考察」, 『中國人文科學』 第46輯(中國人文學會, 2010).

18 잔탁은 M10·M7·M1·M5·M2·M4의 備經·備茶 장면에서 확인된다. 河北省文物研究所, 『宣化遼墓』(文物出版社, 2001).

19 묘주 부부사이에 탁자 위 탁잔과 주완이 부조로 표현되었다. 宿白, 『白沙宋墓』(文物出版社, 2002).

20 좌측 하단 煮茶 장면에서 손에 탁잔을 들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확인된다. 國立故宮博物院 編著, 『故宮藏畫精選』(讀者文摘出版社, 1981).

21 연회장면 중 탁자 위에 탁잔이 놓여있고, 주변에는 주자, 합 등 차를 마시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함께 등장한다. 余輝 主編, 『晉唐兩宋繪畫—人物風俗』(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22 이운진, 앞의 논문, pp. 160~164, 〈부록1〉 참고.

23 『三國史記』卷10 興德王 3年(828年) “…入唐廻使大廉持茶種子來 王使植智異山 茶自善德王時有之 至於此盛焉…”



도 3 傳唐 閻立本, 〈蕭翼賺蘭亭圖〉(부분), 絹本彩色, 27.4×64.7, 臺灣國立故宮博物院



도 4 傳五代 顧闳中, 〈韓熙載夜宴圖〉(부분), 絹本彩色, 28.7×419.4, 北京故宮博物院

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왕실에서는 국가간의 예물이나 의례, 하사품 등으로 차가 사용되었으며,²⁴ 전담기관인 茶房을 두어 제반 법도를 실행하게 하였고, 차생활의 확대에 따라 茶院·茶所·茶店 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찰에서도 여러 행사에서 進茶儀式이 이루어졌음이 『禪苑清規』와 같은 청규서에 나타난다.²⁵ 또한 『高麗圖經』 중 당시 고려인들의 飲茶風俗을 묘사한 기록에는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제법 좋아하여 차와 관련된 여러 도구를 많이 만든다. 金花烏盞, 翡色小甌, 銀花湯鼎은 다 중국 것을 흉내낸 것들이다”²⁶라고 하여 차문화의 성행과 더불어 다양한 다도구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잔탁도 이러한 배경 하에 다도구로서 제작·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각 시대마다 대표적인 飲茶法이 있었는데(표 1),²⁷ 음다법에 따라서 사용되는 다도구의 종류와 형태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唐代의 煮茶法에

²⁴ 『高麗史』의 「禮志」에 기록된 儀禮 중에서는 吉禮(1)·凶禮(2)·賓禮(3)·嘉禮(12)의 총 18항목에 차와 관련한 의례의 기록이 있다.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 뿐 아니라 손님맞이와 명절, 팔관회와 연등회에도 차를 올렸으며 왕실의 통과의례에서도 차를 매개로 한 의례가 실시되었다. 이은주, 「고려시대 궁정의례에 나타난 茶禮연구—연회의 접대절차를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김미영, 「고려시대의 茶儀禮 고찰」(목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7).

²⁵ 特爲茶湯과 같이 차 마시는 의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이며, 식사 후·上堂·小參·結制·解制·巡察·迎寮·知事와 頭首의 진퇴 등 거의 모든 행사에서 차 마시는 의식절차는 빠지지 않고 있다. 鄭在逸, 「자각종색의 『禪苑清規』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 p. 211.

²⁶ 徐兢, 『高麗圖經』 卷32 茶俎 “...故邇來頗喜 飲茶 益治茶具 金花烏盞 翡色小甌 銀爐湯鼎 皆竊効中國制度...”

²⁷ 중국 각 시대의 茶書들을 통해 파악되는 대표적인 飲茶法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로 정리하였다. 고려의 음다법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헌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며, 역사서류와 개인문집을 통해 동시대 중국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해경, 「中國 點茶文化 發展史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신미경, 「다사전적을 통해 본 송과 고려의 차문화 고찰」(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8).

표 1 중국 각 시대의 대표적인 음다법

시기	명칭	방법
三國時代	庵茶法	차잎을 따서 떡모양의 餅茶를 만들고, 이것을 쪼개어 굵고 절구질 한 후, 자기병(또는 항아리)에 넣고 뜨거운 탕을 부어 마신다.
唐代	煮茶法	차잎을 따서 떡모양의 병차를 만들고, 이것을 쪼개어 굵고 절구질 한 후, 가루낸 차를 솥에 넣어 끓이고, 적절하게 배분하여 마신다.
五代	沃茶法	가루낸 차를 잔에 담은 후 탕병으로 끓는 물을 붓는데, 탕병의 주구를 통해 흘러나오는 물줄기의 강약을 조절하여 말차를 풀어 마신다.(이때 茶匙 또는 茶筴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탕수의 물줄기의 완급을 조절하여 차와 탕수를 혼합한다.)
宋代	點茶法	가루낸 차(주로 團茶나 散茶를 갈아 가루로 만든 것)를 잔에 담은 후 탕병으로 끓는 물을 붓는데, 茶匙 또는 茶筴으로 격분하여 乳華를 마신다.(이때 여러 번 물을 붓고, 여러 단계를 거쳐 차선으로 격분하여 차 한잔을 완성시킨다.) 남송대 이후에는 散茶泡茶法(잎차를 그대로 넣고 끓는 물을 부어 우려 마시는 방법)이 등장한다.
元代	點茶法 泡茶法	團茶와 散茶의 말차가 존재하였으나, 남송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散茶泡茶法이 정착하였다.
明代	點茶法 泡茶法	주원장의 1391년 團茶廢止令 이후 團茶飲茶法은 사라지고, 散茶點茶法, 散茶泡茶法으로 정착하였다.

서는 솥과 차를 떠내는 표주박 등이 사용된 반면, 五대의 沃茶法에서는 오직 注子를 사용하여 탕수의 완급 조절로 차와 탕수를 혼합하였는데 이때 주구가 길어진 주자와 함께 잔이 쓰러 지지 않게 받쳐줄 용도의 잔탁 사용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잔탁의 사용은 宋代 點茶法의 유행으로 더욱 증가하였지만 이후 南宋~元代 이르러 잎차를 우려마시는 泡茶法의 등장과 함께 감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회화자료와 가마터 출토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傳唐 閻立本의 <蕭翼賺蘭亭圖>(도 3)에는 차를 넣어 끓이는데 사용하는 솥이, 傳五代 顧闓中的 <韓熙載夜宴圖>(도 4)와 宣化遼墓 벽화(도 2)에서는 주구가 길어진 주자가 잔탁과 함께 등장한다. 반면에 明末 陣洪綬의 <隱居十六觀冊>중 譜泉(도 5)에서는 높이가 낮고 바닥이 편평한 주자와 高足杯가 보인다.²⁸ 여기서 보이는 주자와 고족배는 이전 시기의 다도구와는 다른 형태인데, 散茶위주의 음다법이 성행하면서 제작·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중국 가마터 발굴 자료를 살펴보면 景德鎮 湖田窯址에서는 北宋代 층위부터 잔탁이 출토되다가 南宋 中晚期부터 元·明代 층위에서는 출토되지 않는다.²⁹ 이를 통해 시대에 따라 飲茶의 방법과 다

²⁸ 김부귀, 「고려 다기에 대한 연구—茶碗·茶注子を 중심으로」(동아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

²⁹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鎮民窯博物館 編著, 『景德鎮湖田窯址:1988-1999年 考古發掘調查』上(文物出版社, 2007), p. 470.



도 5 陣洪綬, 〈隱居十六觀冊〉 譜泉(부분), 明末, 紙本水墨, 21.4×29.8,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도구의 사용이 서로 연관되어 잔탁의 제작량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차문화의 성행과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기술적 발전 또한 잔탁의 주요 제작배경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차문화의 유행에 수반되는 다도구의 수요증가가 공예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금속기·칠기·자기 다도구의 제작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하에 자기제 잔탁도 다도구로서 본격적으로 제작·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국내외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자기잔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중국에서 먼저 제작된 잔탁은 南北朝時代의 유적에서 시원적인 형태가 확인되며,³⁰ 唐代부터 浙江省 越州窯와 河北省 邢窯·定窯에서 생산된 자기잔탁이 여러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었다.³¹ 五代~北宋代에는 越州窯·定窯·磁州窯·耀州窯·官窯·景德鎮窯 등 남북방의 여러 요장에서 잔탁의 제작량이 더욱 증가하였고, 다양한 형태와 문양이 나타난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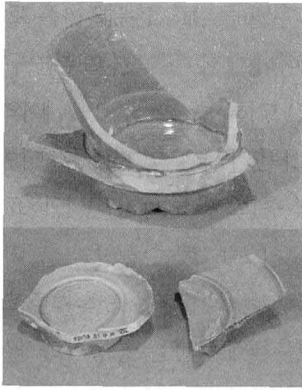
한편 고려의 잔탁은 제작의 초기 단계부터 중국 五代의 것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시흥 방산동요지³³의 최하층, 가장 이른 시기에 출토되는 잔탁(도 6)은 중국 浙江省 寺龍

³⁰ 이윤진, 앞의 논문, pp. 12~13.

³¹ 이윤진, 앞의 논문, pp. 165~178, 〈부록 2〉 참고.

³² 절강성의 寺龍口越窯址, 하북성 定窯와 磁州窯, 陝西省 耀州窯에서는 오대에 이르러 잔탁의 출토량이 증가한다. 송대에는 官窯에서 잔탁이 제작되었으며, 남방의 江西省 景德鎮 湖田窯址에서도 송대부터 靑白瓷窯托이 출토되고 있다.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文物出版社, 2002); 陝西省考古研究所, 『五代黃堡窯址』(文物出版社, 1997); 同著, 『宋代耀州窯址』(文物出版社, 1998);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大象出版社, 2008);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汝州張公巷窯ツソボツウム資料集』(2007); 孫新民, 『汝州張公巷窯的發現與認識』, 『文物』2006-7(文物出版社, 2006); 杭州市文物考古所, 『杭州老虎洞南宋官窯窯址』, 『文物』2002-10(文物出版社, 2002);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鎮民窯博物館編著, 위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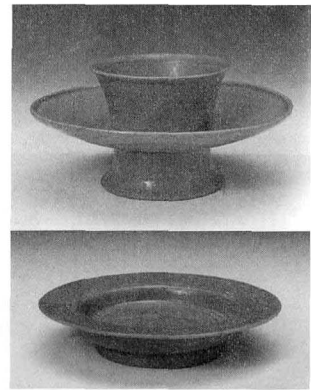
³³ 잔탁은 I 기층(16)·II 기층(13)·III 기층(8)·복합(22)의 약 60점이 확인된다. 해강도자미술관·경기도 시흥시, 『芳山大窯』(2001).



도 6 〈青瓷盞托片〉, 시흥 방산동요지 출토



도 7 〈青瓷盞托片〉, 五代, 중국 浙江省 寺龍口越窯址 출토



도 8 〈青瓷盞托〉, 五代 天福四年(939년), 중국 浙江省 康陵 출토

口越窯址³⁴ 五代層位 출토 잔탁(도 7) 및 浙江省 五代 天福四年(939년) 馬氏王后康陵³⁵ 출토의 잔탁(도 8)과 그 형태가 매우 흡사하다. 즉 중국에서는 唐代부터 잔탁이 본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국내에는 10세기 이후 五代 越州窯 계통의 자기제작기술이 이전되어 국내산 자기를 생산하게 되면서 이때 제작된 잔탁에 오대 기물의 영향이 반영되었던 것이다.³⁶

이후 12~13세기 고려 잔탁의 형태에 있어서는 汝窯의 영향이 두드러져 보인다. 돌출된 잔좌를 갖는 잔탁의 경우 越州窯·景德鎮窯에서는 잔탁의 접시형 몸체 중앙에 첩화의 형식으로 잔좌를 얹어 접합부분이 남아있는데, 汝窯에서는 기물의 전체를 틀로 찍거나 잔좌와 몸체와의 연결부분을 다듬어 접합의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아 고려의 것과 보다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표 2).³⁷ 또한 汝窯產 잔탁(도 9)에 보이는 음각의 연판문은 고려의 것에서도 나타나는 표현방법이며, 이외에 定窯產(도 10)에서 보이는 음각의 뇌문대도 고려 잔탁에서 확인된다.³⁸

³⁴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앞의 책, p.163, p.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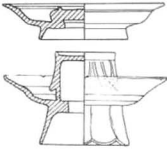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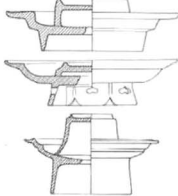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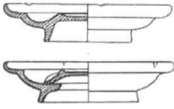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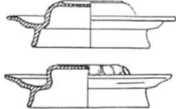

³⁵ 杭州市文物考古所·臨安市文物館, 『浙江臨安五代吳越國康陵發掘簡報』, 『文物』 2000-2(文物出版社, 2000).

³⁶ 唐의 차문화는 삼국·통일신라시대부터 유입되었으나, 동시대 국내유적(황룡사지·미륵사지·안압지)에서는 다도구로서 중국산 자기완이 출토되었을 뿐 자기잔탁의 출토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후 五代의 자기제작기술이 이전되면서 국내산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때 제작된 잔탁에도 五代 기물의 영향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에서 청자의 개시시기를 중국 唐代가 아닌 五代로 볼 수 있는 것에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³⁷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앞의 책, p. 100.

³⁸ 세계도자기엑스포2001 경기도, 『동북아도자기교류전』(2001), 도18, 18-1; 조선관요박물관, 『청자의 색·형』(2005), 도113.

표 2 북송과 고려의 생산지 출토 잔탁 비교

월주요(북송)	경덕진요(북송)	요주요(오대-북송)	여요(북송)	강진 삼흥리
				



도 9 〈白釉刻花雷紋盞托〉, 宋, 높이6.5,
北京 故宮博物院



도 10 〈靑瓷蓮瓣紋盞托〉, 北宋, 높이4.3,
중국 河南省 清涼寺窯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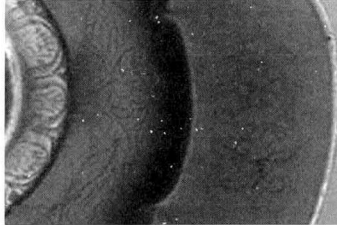
이외에 遼代 금속기와의 유사점도 발견되는데, 內蒙古 赤峰市 衛國王駙馬墓(959년) 출토 銀製盞托³⁹과 비슷한 기형의 靑銅盞托이 고려의 淸州 思惱寺址⁴⁰에서 출토되었다. 또 內蒙古 巴林右旗 哈魯墓에서는 돌출된 잔좌의 측면에 蓮瓣紋, 탁 괴임부에는 波魚紋, 탁 구연부에는 魚子紋 바탕에 草花紋이 장식된 은제잔탁이 출토되었다(표 3). 이러한 문양의 소재와 배치는 12~13세기 고려의 자기잔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각각 재질은 다르지만 고려시대 거란 장인들의 귀화와 같은 사회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요대 금속기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⁴¹

³⁹ 于建設 主編, 『赤峰金銀器』(遠方出版社, 2006), p. 89.

⁴⁰ 국립청주박물관, 『高麗工藝展』(1999), p. 46.

⁴¹ 안귀숙, 『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對中 交涉』, 『高麗 美術의 對外交涉』(예경, 2004), pp.153~192; 임진아, 『高麗靑磁에 보이는 北宋·遼代 磁器의 影響』(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pp. 43~46.

표 3 요대 금속기와 고려 자기잔탁의 문양 비교

요대 금속기잔탁	고려 자기잔탁
	
<p>〈銀製鍍金盞托〉(세부), 遼, 巴林右旗 哈魯墓 出土, 中國 內蒙古博物館</p>	<p>〈靑瓷陰刻波漁紋花形盞托〉(세부), 높이3.5, 밑지름7.3, 미국 보스턴미술관</p>

Ⅲ. 瓷器盞托의 기형과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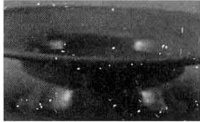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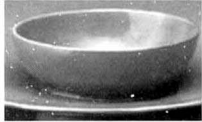


1. 형태적 특징에 따른 기형분류

고려시대 잔탁은 크게 盞座와 托 구연부, 托 굽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다.⁴² 이 중 잔좌는 기물의 기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따라서 잔탁의 전체적인 모습이 크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잔탁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작했기 때문으로, 지금까지의 여러 발굴조사 보고에서는 개별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각각의 유형을 분류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고려 전시기에 걸쳐 제작된 잔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된 분석은 아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려시대 자기잔탁의 기형상 특징을 먼저 잔좌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후 탁 구연부의 위치와 형태, 그리고 탁 굽 등 부분적인 특징에 따라 세분해 보았다.⁴³ 그 결과 잔좌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 4).

⁴² 주 16 참조

⁴³ 전체적인 기형 파악이 가능한 유적 출토의 잔탁편들과 전세품들을 모아 약 480여점을 분류대상으로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제작된 잔탁에 대한 유형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표 4 잔좌의 형태

유형	A	B	C	D
특징	얇은 원형면의 잔좌	잔모양의 잔좌	돌출된 형태의 잔좌	낮게 솟은 잔좌 (조질의 청자)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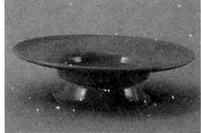

1) A형식

A형식의 잔좌는 기물의 중앙면을 얇게 깎아내거나 주변으로 볼록하게 돌대가 형성된 것이 특징이며, 탁 구연부 및 탁 굽의 형태에 따라 A-I·II형식으로 나뉜다(표 5).

A-I형식은 접시형태로 定宗 安陵(949년)⁴⁴ 출토 잔좌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잔좌는 시흥 방산동 요지의 I기층에서부터 출토되며, II·III기층으로 갈수록 그 수량이 감소한다. 방산동 요지에서는 안릉 출토의 잔좌와 유사

한 굽이 높은 형태와 굽이 낮은 잔좌가 함께 출토되었다. 이같은 A-I형식의 잔좌는 용인 서리 III기층,⁴⁵ 강진 용운리 9호,⁴⁶ 강진 삼흥리 D·E지구에서도⁴⁷ 확인되는데, 모두 해무리굽완을 동

표 5 A형식 잔좌

A-I	A-II
	
〈靑瓷盞托〉, 949년. 밑지름19.5, 定宗 安陵 출토	〈靑瓷盞托片〉, 강진 사당리요지 출토

⁴⁴ 개성에 위치한 고려 3대 定宗(945~949년 재위)과 文恭王后의 무덤이다. 『高麗史』, 『東史綱目』을 통해 정종이 승하한 949년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 世家2 靖宗4年(949年) 3月; 『東史綱目』 第6上 靖宗4年(949年); 김인철, 『고려 태조 왕건 왕릉 발굴보고』, 『고려무덤 발굴보고』(백산자료원, 2003), pp. 5~26; 김종혁, 『개성일대의 고려왕릉 발굴보고(2)』, 『조선고고연구』 2(1986), pp. 32~3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2(1992), p. 41.

⁴⁵ 잔좌는 시기가 가장 이른 I기층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II기(청자1, 백자 12)·III기(백자 20)·IV기(백자 4)층에서 총 37점의 다양한 형식이 출토되었다. 호암미술관,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 발굴조사보고서 II』(2003).

⁴⁶ 강진 용운리 9호(9)·10호 I층(15)·10호 II층(7)·추가형식(4)에서 잔좌가 확인된다.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용운리 청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본문편』(1997).

⁴⁷ 잔좌는 D·E·B지구에서 출토되었다. 호남문화재연구원·농업기반공사, 『康津 三興里 窯址 I』(2004); 국립광주박물관·호남문화재연구원·농업기반공사, 『康津 三興里 窯址 II』(2004).

반하는 초기청자의 생산지이다. 시흥 방산동의 이른 시기부터 제작된 이러한 형태는 강진 용운리의 경우 9호 요지에서는 출토되지만, 10호 I·II층에서는 출토되지 않으며, 삼흥리 D·E지구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제작시기는 10세기 중반~12세기 초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A-II 형식은 전체적인 기물의 형태가 낮은 굽의 넓은 반 또는 평저의 원형접시이며, 중앙에 원형으로 돌대의 잔좌가 형성된 것이다. 사당리⁴⁹와 장흥 대리 유적⁵⁰ 출토의 잔좌의 경우 굽이 매우 낮고 내저면에는 규석을 받쳐 구웠음이 확인되었다.

2) B형식

잔좌가 잔모양인 B형식은 잔좌의 구연부 형태에 따라 외반형·내만형이 있으며, 탁 구연부와 굽의 형태에 따라 총 3가지로 분류된다(표 6).

B-I 형식은 잔좌의 구연부가 직립하거나 외반하고 탁 구연부는 사선으로 올라가 살짝 외

표 6 B형식 잔좌

B-I	B-II	B-III
 <p>〈靑瓷花形蓋托〉, 높이7.8, 탁구연부지름15.8, 러시아 표트르대제인류 학민족학박물관</p>	 <p>〈靑瓷花形蓋托〉, 높이8.6, 호림박물관</p>	 <p>〈靑瓷堆花線紋花形蓋托〉, 높이5.2, 밑지름7.7, 국립중앙박물관</p>

⁴⁸ 시흥 방산동은 국내의 편년유물 및 중국 五代 越州窯 청자와의 비교를 통해 10세기 중엽을 전후로 운영이 시작되어 한국식 해무리굽완이 제작되기 전인 10세기 말경에 요업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진 용운리 9호와 삼흥리 D지구는 11세기 전반~후반, 삼흥리 E지구의 주 운영 시기는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으로 용운리 10호 I층과 II층의 전반부에 해당하며, 이후 13세기까지 운영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I 형식은 삼흥리 E지구에서 한 점이 확인되어 12세기 초반까지는 제작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가마별 운영 시기는 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종민, 앞의 논문: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혜안, 2006).

⁴⁹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왕실의 도자기』(2008), p. 68.

⁵⁰ 장동철·한성욱, 『장흥 대리 유적 출토 자기』, 『탐진다목적댐 수물지역 문화유적 II -가물막이댐 수물지역 시굴조사 보고』(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2002), pp. 149~151, p. 171.

반한다. 앞서 이러한 B-I형식 잔탁은 방산동 출토품(도 6)과 중국 寺龍口越窯址 五代層位(도 7) 및 康陵(939년)(도 8)출토 잔탁을 통해 고려시대 초기청자 요지에서 월주요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시흥 방산동의 I·II·III기층과 용인 서리 III기층⁵¹에서 출토되어 10세기 중반~11세기 전반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B-II·III형식은 잔좌의 구연부가 내만하여 그 형태가 마치 팽이형 잔의 구연부와 유사한데, 구경이 좁고 높은 것(B-II형식)과 넓고 낮은 것(B-III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B-II형식은 대부분 탁 구연부의 끝을 측면에서 눌러 수직으로 꺾인 형태가 많고, 잔좌의 내저부는 굽까지 뚫린 것과 막힌 것이 모두 해당된다. 강진 용운리와 삼흥리 등 강진 지역의 요장에서 주로 확인되며, 호림박물관 소장 〈靑瓷花形盞托〉과 같이 꺾인 구연부를 다시 부분적으로 눌러 화형을 이룬 예도 있다.

B-III형식은 탁 구연부가 편평하거나 완만하게 올라가는 형태이다. 용인 서리 III기층부터 출토되며 토축요 단계의 요장에서 제작되고 이후 강진 용운리 10호 II층, 부안 진서리,⁵² 유천리,⁵³ 용인 보정리⁵⁴ 등 고려 중기 가마터와 희중 석릉,⁵⁵ 혜음원지,⁵⁶ 동해 삼화동 고분⁵⁷ 등지에서 다수 확인된다.

3) C형식

C형식의 잔탁은 잔좌가 몸체 중앙에서 돌출된 것으로 잔좌의 돌출 정도에 따라, 탁 구연

⁵¹ 용인 서리 III기층은 토축요 단계에 한국식 해무리굽완이 출토되며, 운영 시기는 10세기 말~11세기 전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⁵² 잔탁은 18호(1)·20호(3)에서 출토되었다.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扶安 鎭西里 靑瓷窯址 第18號窯址發掘』(2001); 同著, 『各地 試·發掘調査報告書』(2000).

⁵³ 잔탁은 2호(1)·5호(1)가마와 기타 퇴적구2(1)·3(2)에서 출토되었다. 원광대학교박물관, 『부안 유천리 7구역 청자요지군 발굴조사보고서』(2001).

⁵⁴ 잔탁은 총 10점이 출토되었다. 기전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공사, 『龍仁 寶亭里 靑磁窯址 〈본문·도면〉』(2006).

⁵⁵ 국립문화재연구소, 『江華碩陵』(2003).

⁵⁶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坡州 惠陰院址 發掘調査 中間報告書』(2003); 姜京男, 『坡州 惠陰院址 出土 高麗靑瓷 研究』(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坡州 惠陰院址 發掘調査 報告書-1차~4차(本文)』(2006); 同著, 『坡州 惠陰院址 發掘調査 報告書-1차~4차(寫眞·圖面·榻本)』(2006).

⁵⁷ 정양모, 『三陟郡 北坪邑 三和里出土 高麗時代 遺物一括』, 『고고미술』 129·130(한국미술사학회, 1976);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2002), pp. 84~87.

부보다 낮은 C-I 형식과 높은 C-II 형식으로 나뉜다. 또 탁 구연부가 생략되고 4~5개의 굽다리가 달린 C-III 형식, 전체적인 기형이 넓은 盤의 형태인 C-IV 형식을 포함하여 4가지로 분류된다(표 7).

표 7 C형식 잔탁

C-I	C-II	C-III	C-IV
 <p>〈白瓷蓮瓣紋盞托〉, 높이2.8, 탁구연부지름14.2,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p>	 <p>〈靑瓷象嵌菊花紋花形盞托〉, 1323년경, 높이5.2, 탁구연부지름12.5, 밑지름8.0, 신안 해저 유적 출토, 국립해양유물전시관</p>	 <p>〈靑瓷堆花紋盞托〉, 높이6.2, 미륵사지 출토, 미륵사지 유물전시관</p>	 <p>〈靑瓷花形陰刻波紋花形盞托〉, 부안 유천리 요지 출토,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p>

C-I 형식 잔탁은 기물의 높이가 모두 5cm를 넘지 않는, 전체적으로 낮고 폭이 넓은 형태이다. 시흥 방산동·용인 서리·여주 중암리⁵⁸와 같은 고려 초기청자 요지의 최하층, 즉 청자 제작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출토되고 있다.

C-II 형식은 C-I 형식에 비해 잔좌의 돌출정도가 탁 구연부보다 높게 솟은 형태로 용인 서리의 III기층·여주 중암리 V층에서부터 나타난다. 이후 고창 용계리,⁵⁹ 강진 지역의 토축요에서는 C-I 형식이 보이지 않고 돌출된 잔좌의 형태로는 C-II 형식의 잔탁만이 확인된다. C-II 형식은 탁 구연부와 탁 굽이 화형을 이루는 화형잔탁의 예가 많은데, 화형의 형태가 제작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지에서 출토되는 초기의 C-II 형식은 탁 구연부와 탁 굽이 원형이다. 그러나 강진 용운리 9호·10호 I층에서는 탁 구연부를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눌러 화형을 이룬 것이 등장하며, 10호 II층에서는 구연부와 굽 부분을 오리거나 굽은 음각의 선으로 구획한 화형잔탁이 출토된다. 강진 용운리 10호 II층에서 보이는 화형의 예는 이후 화형잔탁의 전

⁵⁸ 잔탁은 총 11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8점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가장 이른 시기의 퇴적층인 V층(3)·IV층(1)·I층(2)·아궁이 주변(2)에서 확인된다. 경기도박물관·여주군,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2004).

⁵⁹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高敞雅山덤 水沒地區 發掘調査報告書』(1985), p. 107~109.

형적인 형태로 중기 이후 강진과 부안의 여러 요장 및 전세품에서 다수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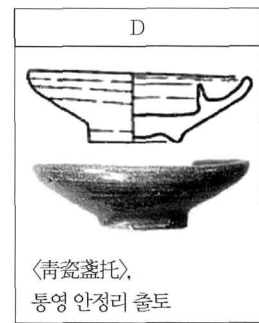
C-Ⅲ형식의 잔좌는 C-Ⅱ와 동일하지만, 탁 구연부가 생략되고 돌대나 투각장식의 欄干帶가 형성되어 있다. 탁 굽은 다리와 다리 사이를 깎아 약 5개의 굽다리가 있는 台輪足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C-Ⅲ형식 잔탁은 한 기물에 여러 가지 시문기법이 활용되었으며, 투각장식과 굽의 제작양상 등으로 보아 정성들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굽 내저면에는 모두 규석받침흔적이 남아있고 운주사지,⁶⁰ 천덕사지,⁶¹ 미륵사지⁶² 등 사지에서 주로 출토되어 고려 중기 이후 사찰이나 왕실 및 귀족계층을 위한 고급의 청자로 제작·소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부안 유천리 출토품 중에도 잔좌는 결실되었으나 투각장식의 난간대와 굽다리편이 남아 있어 C-Ⅲ형식 잔탁의 생산지를 짐작할 수 있다.⁶³

C-Ⅳ형식은 잔좌의 형태는 C-Ⅱ형식과 유사하지만, 잔탁의 몸체가 넓은 盤의 형태이며 구연부 전의 넓이가 비교적 좁아 다른 C형식과는 구분된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의 부안 유천리 출토품을 통해 확인되며, 출토품 및 전세품의 수가 많지 않다.

4) D형식

D형식 잔탁은 잔좌와 탁 구연부 등이 전체적으로 낮게 형성된 것으로 잔좌에서 굽으로 갈수록 직경이 좁아진다. 대전 구완동⁶⁴과 통영 안정리 출토품⁶⁵ 등이 이에 속하며 주로 고려시대 중기 이후 조질계통의 청자가마터에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표 8).

표 8 D형식 잔탁



60 전남대학교박물관·화순군, 『운주사 Ⅱ』(1988), p. 80.

61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거창 임불리 천덕사지』(1997), p. 164.

6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Ⅱ』(1996), p. 317.

63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扶安柳川里窯 高麗陶器』(1983), p. 49.

64 해강도자미술관·대전광역시, 『大田舊完洞窯址-어청골靑磁窯址·瓦窯址發掘調査報告書』(2001), p.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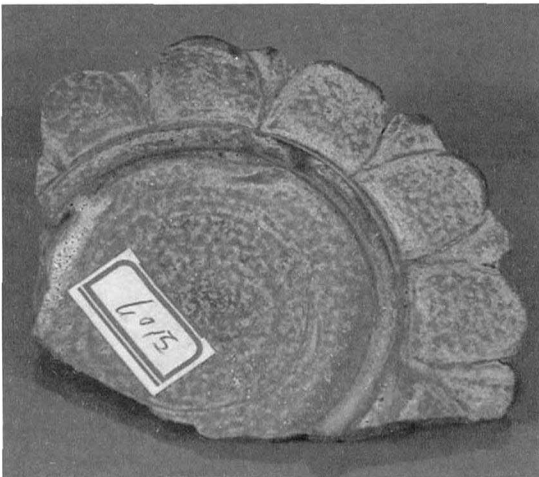
65 경남고고학연구소, 『통영안정리유적-고려역지조사보고서』(2002), p. 294.

2. 문양소재별 표현양상

고려시대 자기잔탁은 제작 초기 단계부터 문양이 장식되었으며, 음각·양각·인화·상감·퇴화·투각·철화·辰砂彩 등 여러 기법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한 기물에 두세 가지 장식기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고, 시문되는 문양의 소재도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 잔탁에 시문된 문양의 소재는 크게 식물문·동물문·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물의 형태와 부위, 장식기법에 따라 한정된 소재와 일정한 유형이 반영되어 있다(표 9). 따라서 잔탁에서의 문양표현은 기물의 형태와 문양의 소재, 시문되는 위치, 장식기법을 서로 관련 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잔탁에 시문되는 다양한 문양 소재 중에서 기형·시문위치·기법 등이 유기적인 특징을 보이는 연판문, 국화문, 螭龍紋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연판문

연판문은 모두 돌출된 잔좌의 측면에 다양한 기법으로 시문되었다. 크게 연잎의 끝이 아래를 향해있는 伏蓮과 위를 향해있는 仰蓮으로 구분되며, 다시 연잎이 포개진 형태에 따라 單瓣과 重瓣으로 나뉘고, 내부에 아무 문양이 없는 것과 잎맥·당초 등의 문양표현이 있는 것으로 세분된다. 그 외에 틀이나 도구를 사용해 찍거나 세로선으로 간략하게 연잎을 표현한 기타 유형도 있다(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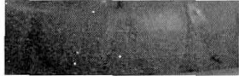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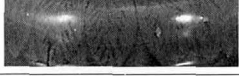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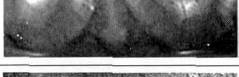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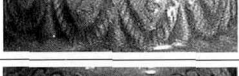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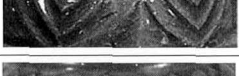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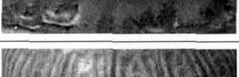

도 11 〈靑瓷盞托片〉, 시흥 방산동요지 출토

연판문은 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여주 중암리 등 초기청자 요지의 이른 층위에서부터 등장한다. 모두 파편이지만 돌출된 잔좌의 높이가 탁구 연부보다 낮은 C-I 형식의 잔탁으로 생각되며, 연판문의 초기 형태로서 주목된다. 이 중 시흥 방산동에서 출토된 연판문 잔좌편은(도 11) 틀로 찍은 것을 기물 위에 얹혀서 제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둥글고 끝이 뾰족하며 내부에는 아무 장식이 없는 연판의 형태로 전세품 중에는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

표 9 문양의 종류와 형식별 시문위치 및 장식기법

문양소재		형식	시문위치	장식기법	
식물	연판문	C-I, II, III, IV	잔좌의 측면	음각, 양각, 인화, 상감	
	국화문	국화문(1송이)	C-II, III	잔좌의 윗면	음각, 상감
		국화절지문	B-III, C-II, III	잔좌의 측면, 탁구연부 전, 탁굽의 측면	음각, 상감
		국당초문	B-III, C-II	탁구연부 전, 탁 괴임부	음각, 상감
	모란문 모란문	모란절지문	C-II	잔좌의 윗면, 탁구연부 전, 탁굽의 측면	상감
		모란당초문	C-II	탁구연부 전, 탁 괴임부	음각, 상감
	초화문	화문	B-I, III, C-II, III	잔좌의 윗면, 잔좌의 가장자리, 탁구연부 전, 탁굽의 측면	음각, 양각, 상감, 퇴화, 철화
		화절지문			
		초문			
	당초문·당초문대		B-III, C-II, III, IV	잔좌의 구연부, 탁구연부 가장자리, 탁구연부 전	음각, 상감
동물	螭龍紋	B-III	탁구연부 전	양각	
	파문·파어문	C-II, III, IV	탁 괴임부	음각	
기타	뇌문(대)	B-III	잔좌의 구연부, 탁구연부 가장자리, 탁굽의 측면	음각, 상감	
	운문	C-II	탁굽의 측면	음각, 상감	
	원문·연주문·점문	B-III, C-II, III	잔좌의 가장자리, 탁굽의 측면	인화, 퇴화	
	문자문	C-II	탁구연부 전	상감	
	여의두문	C-IV	잔좌의 측면	음각	

표 10 잔탁에 시문되는 연판문의 형태

연잎의 형태		세부 표현 및 특징	형태
伏蓮	단판	내부에 장식이 없는 것	
		내부에 가는 세선으로 잎맥이 표현된 것	
		내부에 가는 세선의 잎맥과 당초문이 표현된 것	
	중판	내부에 장식이 없는 것	
		내부에 가는 세선으로 잎맥이 표현된 것	
		내부에 가는 세선의 잎맥과 당초문 혹은 원문이 표현된 것	
		세 겹의 연판이 표현되었고, 가장자리에 聯珠紋이 시문된 것	
	仰蓮	단판	내부에 장식이 없는 것
중판		세 겹의 연판이 표현되었고, 가장자리에 聯珠紋이 시문된 것	
기타	굵은 음각의 세로선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것		
	틀이나 도장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찍어서 표현한 것		

물관 소장의 <白瓷蓮瓣紋盞托>(도 12)이 이와 유사하다.

이후 돌출된 잔좌가 탁 구연부보다 높게 솟은 C-II·III·IV형식 잔탁에서는 연판문의 사용이 더욱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시기적으로는 단판에 내부 장식이 없는 것이 초기청자 가마터에서 보이며, 고창 용계리에서는 음각의 세로선이나 도구를 사용해 찍어서 간략하게 연판을 표현하였다. 이후 부안 진서리 요지에서는 단판에 가는 음각의 세로선으로 잎맥이 표현된 연판문의 예가 출토되었다. 중판으로 표현한 것은 단판보다는 이후에 시작하여 유행한 것으로



도 12 <白瓷蓮瓣紋盞托>, 높이2.8, 탁구연부지름14.2, 프랑스 국립기매동양박물관

로 생각되고⁶⁶ 연판 내부에는 이전에 비해 잎맥과 당초 등이 추가로 장식되었다.

상감기법의 연판문은 음·양각기법의 것과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하고 단판에 연꽃잎 윤곽은 백상감, 잎맥은 흑상감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 연판문과 잔좌의 윗면과의 경계에 연주문으로 장식한 것이 있는데 인화로 찍어 표현하거나 백퇴화점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꽃 모양의 틀로 압출하여 표현한 경우도 있다. 이들 모두 기본적인 연판문의 표현 이후 추가된 것으로 주로 세 겹의 연판과 함께 장식되며, 꽃모양의 틀로 압출한 것은 금속기 잔탁에서 보이는 타출기법과도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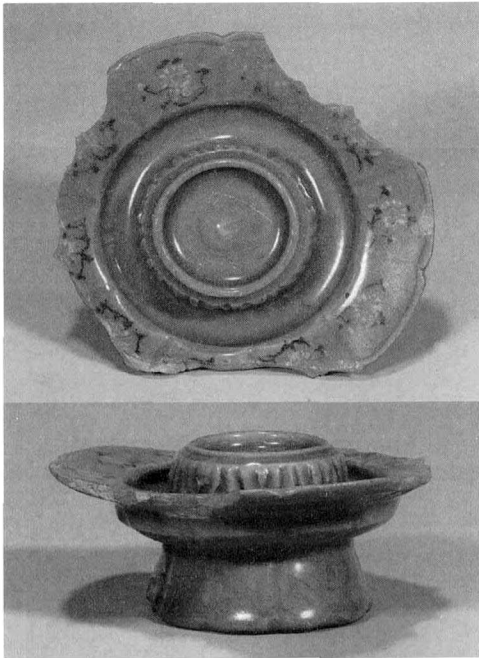
하지 않을 것으로 그 영향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 국화문

국화문은 잔탁에서 선호된 대표적인 문양 소재로 B-Ⅲ, C-Ⅱ·Ⅲ형식의 잔탁에서 볼 수 있다. 잔모양 잔좌를 가진 B-Ⅲ형식 잔탁에서는 탁 구연부에, 돌출형 잔좌의 C-Ⅱ·Ⅲ형식 잔탁에서는 탁 구연부와 탁 굽, 잔좌의 윗면 등에 시문되었으며, 주로 상감기법이 사용되었다. 한 송이가 시문되거나 절지형·당초형으로 구분되며 시문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B-Ⅲ형식 잔탁에서는 탁 구연부에 상감기법으로 3~4개의 국화문이 절지형으로 시문되며, 가장자리에 뇌문대가 함께 시문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국화문은 돌출된 잔좌의 C형식 잔탁에 주로 나타난다. 잔좌의 윗면과 탁 구연부, 탁 괴임부와 탁 굽 등에 시문되는데, 탁 구연부에 상감기법의 절지형태로 시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국화문이 장식된 C-Ⅱ형식의 잔탁은 모두 화형을 이루는데 화형의 탁 구연부에 표현된 국화문의 시문양상에는 시기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3세기 전반

⁶⁶ 잔탁에서 중판으로 표현된 연판문은 삼흥리 B지구에서 출토된 1점 외에 아직까지 고려초기·중기 가마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도 13 <靑瓷象嵌菊花紋花形盞托>, 1237년, 높이5.8, 희종 석릉 출토, 국립문화재연구소



도 14 <靑瓷象嵌菊花紋花形盞托>, 1323년경, 높이5.2, 탁구연부지름12.5, 밑지름8.0, 신안 해저 유적 출토,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의 편년을 갖는 희종 석릉(1237년)⁶⁷ 출토 <靑瓷象嵌菊花紋花形盞托>(도 13)은 탁 구연부의 각 화판마다 절지형태의 국화문이 하나씩 흑백상감되었다. 그러나 14세기 전반의 신안해저(1323년)⁶⁸ 출토 <靑瓷象嵌菊花紋花形盞托>(도 14)에서는 탁 구연부에 화판마다 국화문이 두 송이씩 흑백상감되었고 탁 괴임부와 탁 굽에도 문양이 장식되어, 문양이 점차 복잡해지고 시문부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⁶⁷ 강화에 위치한 碩陵(사적 제369호)은 고려 21대 熙宗(1181~1237년, 1204~1211년 재위)의 陵으로 『高麗史』를 통해 1237년(高宗 24年)의 축조연대를 알 수 있다. 『高麗史』世家21 熙宗7年(1211年) 12月; 『高麗史』世家23 高宗24年(1237年) 8月;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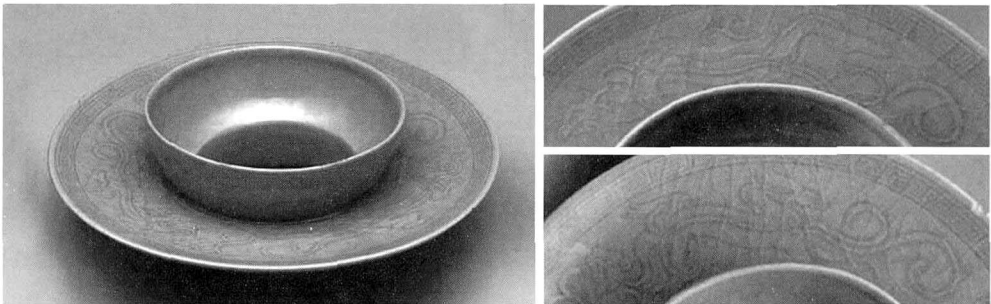
⁶⁸ 동반 출토된 목간을 통해 신안선은 1323년 중국 영파에서 일본 하카다를 향하던 중 침몰한 무역선이었음이 알려졌다. 문화재청·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2006).

3) 螭龍紋⁶⁹

고려자기에 시문된 이룡문은 잔탁 외에 완, 접시, 잔 등에서도 확인되나 알려진 수량이 많지 않다. 잔탁에서는 잔모양 잔좌에 폭이 비교적 넓은 B-Ⅲ형식에서만 사용예가 보이며, 탁구연부 윗면에 반양각기법으로 2~3마리의 서로 다른 형태의 이룡이 시문되었다(도 15). 특히 머리는 위에서 내려다본 정면의 모습과 옆에서 살펴본 측면의 모습이 다른데, 정면의 모습은 역삼각형의 얼굴에 두 눈이 모두 표현된 반면, 측면은 길게 나온 입과 한쪽 눈이 표현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문양에 대해서 기존에는 별다른 근거나 논의없이 교룡문, 휘룡문, 운룡문 등 여러 명칭이 사용되었고,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중국 도자와의 관련에 주목하여 현재 중국에서 부르는 ‘螭龍紋’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⁷⁰

이룡이란 중국 고대 상상의 동물인 용의 일종으로 송대 이후 정요자기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각화나 획화, 압출기법을 사용하여 기물의 내저중앙에 시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북성에서 출토된 金 大定 二十四年(1184년)의 〈螭龍紋印花模子〉를 통해 12세기 후반 경에는 이미 모범을 통한 능숙한 표현이 가능해졌으며, 이전 시기부터 자기에 표현된 것으로 추정할 수



도 15 〈靑瓷陽刻龍紋盞托〉(세부), 높이6.1, 잔좌지름10.3, 미국 보스턴미술관

⁶⁹ 螭龍이란 중국 고대 상상의 동물인 용의 일종으로『說文解字』에서는 “螭龍은, 황색 용과 같고 북방에서는 땅강아지(址螭)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얼굴은 범과 비슷하고 구불구불하게 휘어진 긴 몸체와 꼬리에 짧은 사지를 갖는 모습으로 商周時代 靑銅器 장식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후 玉器에서 유행하였다. 龍仁德, 『戰國漢代玉雕螭紋的造型與紋飾研究』, 『文物』1986-9(文物出版社, 1986).

⁷⁰ 최근 고려청자 연구에서도 학술적 자료들을 통해 용문의 한 형태로서 ‘螭龍紋’의 용어 사용이 이루어졌다. 이종민, 『高麗靑瓷 龍裝飾의 樣式的 系譜와 編年』, 『역사와 담론』 제 53집(호서사학회, 2009).

있다.⁷¹ 고려 잔탁과 비교하면, '回'자형 뇌문대가 함께 장식되고 정요자기의 각화와 유사한 반양각기법으로 시문되는 등 중국도자와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진 사당리를 제외한 다른 가마터에서는 현재까지 출토예가 없으며,⁷² 동해시 삼화동 고분 출토품은 동반유물의 양상을 통해 12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되고 있어 이러한 이룡문은 12세기 중엽 이후 강진의 사당리에서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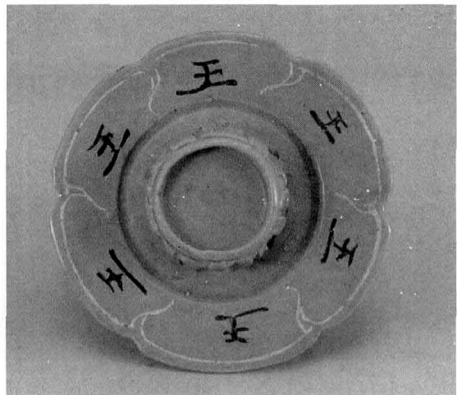
4) 기타

이밖에 뇌문·원문·연주문 등은 잔탁에서 기물의 가장자리나 다른 문양 소재들과 어우러져 시문되었다. 뇌문은 B-Ⅲ형식 잔탁에서만 확인되며, '回'자형과 '之'자형이 각각 이룡문이나 국화문과 조합양상을 보인다. 원문·연주문은 연판문의 내부나 주변에 촘촘하게 장식되었는데, 이러한 문양의 구성은 비교적 시문수법이 용이한 원문·연주문 등을 더해 잔탁의 기면에 더욱 화려한 문양을 장식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靑瓷堆花線紋花形盞托>(도 16)에서 보이는 백퇴화선은 금속기 잔탁에서 도드라져 올라온 부분의 특징을 표현한 것으로 짐작되며,⁷³ 이외에 강진 사당리 출토로 알려진 <靑瓷象嵌王銘花形盞托>(도 17)과 같이 문자를 문양처럼 장식한 예도 있다.⁷⁴



도 16 <靑瓷堆花線紋花形盞托>, 높이5.2, 밑지름7.7, 국립중앙박물관



도 17 <靑瓷象嵌王銘花形盞托>, 높이6.6, 밑지름7.7, 강진청자박물관

71 穆青, 『定瓷藝術』(河北教育出版社, 2002), p. 143; 박지영, 「高麗 陽刻靑磁 研究」(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p. 113.

72 강진청자박물관, 『강진청자 500년』(2006), p. 73;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 65.

73 염혜희, 「高麗 堆花靑磁 研究」(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7), pp. 97~98.

74 강진청자박물관, 『강진청자박물관 名品圖錄』(2007), p. 132.

IV. 瓷器輸出의 양식적 특징과 변화

고려시대 자기잔탁은 앞서 여러번 언급했듯이 중국의 문화·기술적 영향 하에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편년유물 및 현전하는 여러 유물들을 통해 조형적인 특징이 파악되었고, 잔탁이 출토된 가마터의 층위별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려시대 자기잔탁의 양식적 변화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고려시대 잔탁은 10세기 중반경 중국 차문화의 확산과 오대 월주요의 製瓷技術의 영향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11세기 후반까지 그 양식적 조형의 성립이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정종 안릉(959년) 출토 잔탁이 이에 해당하며, 시흥 방산동의 가장 이른 층위 출토 잔탁은 중국 寺龍口越窯址나 康陵(939년) 출토품과 유사해 밀접한 영향관계를 알 수 있다(표 2). 잔탁은 제작의 초기부터 한 요장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내저 중앙에 원형면으로 얇게 형성된 잔좌(A형식), 구연부가 사선을 이루며 외반하는 잔모양 잔좌(B-I형식), 돌출된 잔좌의 높이가 탁 구연부 높이보다 낮은 잔좌의 잔탁(C-I)이 그것이다. 11세기 중반부터는 용계리 출토의 잔탁과 같이 잔탁에서 잔좌의 높이가 탁 구연부보다 약간 높은 C-II형식이 나타난다. 이시기 문양은 C-I·II형식의 잔탁에서 잔좌 측면을 깎거나 누른 연판문이 제작의 초기단계부터 확인되며, 탁 구연부 가장자리 일부를 부분적으로 누르거나 오려낸 화형잔탁의 예도 보인다.

11세기 말~12세기 전반경 고려는 대외적으로 송과의 교류를 재개하면서 동시대 송의 새로운 요소들을 반영하였고, 청자제작에도 큰 변화가 있어 가마의 축조 및 기물의 제작기술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잔탁은 용인 서리 후대층위(IV기층)와 강진 용운리 10호 II<가>·삼흥리·부안 진서리 등의 한반도 남서부지역에서 출토되며, 주로 양질의 가마터에서 생산되었다. 이시기에 해당하는 가마터 출토품들의 형식과 수량을 확인한 결과 A형식은 감소하고 B·C형식 잔좌의 두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B-I형식은 감소하였으며, B-II·III형식의 잔좌의 내저면이 굽까지 뚫린 것이 새롭게 등장한다. 또 강진 용운리와 삼흥리에서는 B-II형식 잔탁의 탁 구연부 가장자리를 측면에서 수직으로 눌러 두껍게 꺾인 형태가 출토되었는데, 양산 신기동 유적에서도 보이는 이러한 형태는 강진지역 요장만의 지역적 특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C형식 잔좌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잔좌의 높이가 이전보다 높게 솟은 C-II형식으로 제작되고 시문부위가 잔좌의 측면 뿐 아니라 잔좌의 윗면과 탁 구연부까지 확대되었다.

12세기 중반~13세기 중반에는 강진 용운리 10호-II<나>/<다>·삼흥리·부안 진서리·유천리·대전 구완동·용인 보정리 등으로 잔탁의 제작지가 이전시기보다 확산되었고, 지역적으로 또는 한 요장 내에서도 양질과 조질의 질적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시기에는 잔좌가 잔모양으

로 폭이 넓은 B-Ⅲ, 돌출된 잔좌의 높이가 탁구연부보다 높은 C-Ⅱ형식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A-Ⅱ형식이 증가하고 C-Ⅲ·Ⅳ형식과 같이 보다 정교한 형태의 잔탁도 제작되었다. 대표적인 편년 유물로는 희종 석릉(1237년) 출토의 잔탁을 들 수 있다(도 13). 또 D형식과 같이 조질의 잔탁에서만 확인되는 형태도 대전 구완동과 통영 안정리에서 출토되었다. 장식면에서는 잔탁에서 상감기법의 사용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릉문과 같이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던 다양한 문양소재가 등장하였다(도 15).



도 18 《靑瓷象嵌蓮瓣紋盞托》, 높이2.8, 탁구연부지름 15.0, 무안 도리포 해저 유적 출토,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마지막으로 13세기 후반~고려 말에 해당하는 시기의 잔탁은 현재 가마터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도 용장성, 신안과 무안 도리포 해저출토품 등 편년추정이 가능한 유적 출토품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271년의 하한을 갖는 진도 용장성⁷⁵과 신안해저(1323년) 출토의 잔탁(도 14)을 살펴보면, 모두 C-Ⅱ형식으로 한 화판에 국화문이 두 송이씩 시문되었고 기물의 전면에 빼곡하게 문양이 시문되어 이전에 비해 화려한 장식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세기 고려 말기 청자로 편년되는 무안 도리포⁷⁶ 출토의 잔탁은 기물의 높이가 낮고, 상감기법으로 연판문을 간략하게 시문하였다(도 18). 기벽이 투박하고 잔좌 중앙부는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데, 고려 말~조선 초로 넘어가는 시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문양의 소재와 시문기법이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과 고려 말~조선 초 과도양식 간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⁷⁷

75 삼별초 관련 유적으로 삼별초는 高麗 元宗 11年(1270年)부터 진도에 내려와 다음해 제주도로 옮겨갔다. 목포대학교박물관, 『珍島 龍藏城』(1990), p. 16, p. 83.

7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2003), p. 42.

77 13세기 후반 이후 고려 말까지의 잔탁은 생산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년을 알 수 있는 유물의 수량도 많지 않다. 또 이전 시기와 더불어 유물마다 질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의 발굴·연구 성과에 따라 양식적 차이에 의한 전후의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문헌기록과 회화자료, 발굴성과와 전세품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시대 자기잔탁의 개념 및 조형적 특징과 양식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잔탁의 제작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다양한 용어로 불렸으나 宋代부터 ‘蠶托’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여 정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잔탁은 唐代 차문화의 성행과 도자제작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다도구로서 자기로 제작되었으며, 飲茶法의 변화와 같은 이유로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하고 제작이 활성화 되었다. 고려에서도 차문화의 성행과 五代 越州窯의 製瓷技術이 이전되면서 다도구로서 잔탁이 제작되었으며, 이후 동시기 송대 여러 요장에서 제작된 자기잔탁의 영향 하에 발전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었다.

고려시대 자기잔탁은 초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중기 이후에는 제작지가 여러 곳으로 확산되었고 고려 말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기형은 잔좌의 형태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며 탁구연부·탁굽에 따라 세분할 수 있었다. 문양은 소재·시문기법·위치 등이 기물의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 시대와 기형에 따라 선호되는 문양 소재가 있고 정해진 시문위치와 기법이 확인되었다. 때문에 각 소재별 문양 표현에는 시기적인 특색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조형적 특징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며 변화해간 양상도 파악되었다.

지금까지 잔탁은 한국도자사에서 단독의 연구주제로 주목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개념과 용어, 편년의 문제가 명확한 논의 없이 인식되어 왔다. 이것은 다른 기물의 받침, 즉 부속기로서 사용되었던 잔탁의 특성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받침’이라는 기물의 특성은 ‘蠶托’이라는 용어 및 개념에 포함되고 뜨거운 잔에 손을 데이지 않기 위해 고안된 잔탁의 제작 동기 와도 연결되며 ‘蠶座’라는 조형적 특징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자기질 잔탁은 중국자기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고려 전시기에 걸쳐 제작되었고, 사용면에서는 왕실이나 사찰, 그 안에서도 사용자의 위계와 관계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잔탁은 고려도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기물로서 주목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고려시대 자기잔탁을 독립적인 주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다각적 접근과 파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한다.

*주제어(key words) _高麗瓷器(Goryeo ceramics), 蠶托(Jantak), 托盞(Takjan), 飲茶法(tea drinking method), 禪苑清規(Seonwoncheonggyu)

참고문헌

1. 사료·문집

『高麗史』
『三國史記』
『宣和奉使高麗圖經』
『茶具圖贊』
『陶說』
『東京夢華錄』
『演繁露』
『資暇集』

2. 단행본

강경숙,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윤용이, 『韓國陶瓷史研究』, 문예출판사, 1993.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 혜안, 2006.
정양모, 『한국의 陶磁器』, 문예출판사, 1991.
최법혜 역주, 『고려관 선원청규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2.
穆青, 『定瓷藝術』, 河北教育出版社, 2002.
宿白, 『白沙宋墓』, 文物出版社, 2002.
熊寥, 『中國陶瓷古籍集成—註釋編』,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葉喆民, 『汝窯聚珍』, 北京出版社, 2001.
齊東方, 『唐代金銀器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趙青雲, 『宋代汝窯』, 河南美術出版社, 2003.

3. 도록

- 강진청자박물관, 『강진청자 500년』, 2006.
- 강진청자박물관, 『강진청자박물관 名品圖錄』, 2007.
- 국립문화재연구소, 『프랑스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1999.
- _____, 『미국 보스턴 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2004.
-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고려청자 다시 찾은 비취색의 꿈』, 2006.
- 국립중앙박물관, 『高麗靑磁名品特別展』, 1989.
- _____, 『고려 왕실의 도자기』, 2008.
- 국립청주박물관, 『高麗工藝展』, 1999.
-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2002.
- 세계도자기엑스포2001 경기도, 『동북아도자교류전』, 2001.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高麗陶瓷』, 1981.
- _____, 『扶安柳川里窯 高麗陶瓷』, 1983.
- 전라북도 익산지구문화유적 관리사업소,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997.
- 조선관요박물관, 『청자의 색·형』, 2005.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2, 1992.
- 호림박물관, 『호림박물관소장품선집-청자 I』, 1991.
- 高麗美術館, 『高麗美術館 所藏品 圖錄』, 2003.
- 國立故宮博物院 編著, 『故宮藏畫精選』, 讀者文摘出版社, 1981.
- 余輝 主編, 『晉唐兩宋繪畫-人物風俗』,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 于建設 主編, 『赤峰金銀器』, 遠方出版社, 2006.
- 張柏, 『中國出土瓷器全集』 9, 科學出版社, 2008.
- 浙江省博物館, 『浙江紀年瓷』, 文物出版社, 2000.

4. 보고서

- 경기도박물관·여주군,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 2004.
- 경남고고학연구소, 『통영 안정리 유적-고려 역지 조사보고서』, 2002.
- 국립광주박물관, 『康津 三興里 窯址 II』, 2004.
- 국립문화재연구소, 『江華碩陵』, 2003.
- _____, 『개성 고려궁성 시굴조사보고서』, 2008.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II』, 1996.

- 국립중앙박물관,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圖版編』, 1996.
 _____,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本文編』, 1997.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 2003.
- 기전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공사, 『龍仁 寶亨里 靑磁窯址—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14지점 발굴조사 보고서—〈본문·도면〉』, 2006.
- 목포대학교박물관, 『珍島 龍藏城』, 1990.
-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 문화유적Ⅱ—가물막이댐 수몰지역 시굴조사 보고서』, 2002.
-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Ⅰ』, 1989.
- 문화재청·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산』, 2006.
-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거창 임불리 천덕사지』, 1997.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高敞雅山댐 水沒地區 發掘調査報告書』, 1985.
 _____, 『扶安 鎮西里 靑瓷窯址 第18號窯址發掘』, 2001.
 _____, 『各地 試·發掘調査報告書』, 2000.
- 원광대학교박물관, 『부안 유천리 7구역 청자요지군 발굴조사보고서』, 2001.
- 전남대학교박물관, 『운주사 Ⅰ』, 1984.
- 전남대학교박물관·화순군, 『운주사 Ⅱ』, 1988.
- 해강도자미술관·시흥시, 『芳山大窯』, 2001.
- 해강도자미술관·대전광역시, 『大田 舊完洞 窯址—어청골 靑磁窯址·瓦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2001.
- 호남문화재연구원·농업기반공사, 『康津 三興里 窯址Ⅰ』, 2004.
- 호암미술관,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 발굴조사보고서Ⅱ』, 2003.
-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鎮民窯博物館 編著, 『景德鎮湖田窯址:1988—1999年 考古發掘調查』上·下, 文物出版社, 2007.
-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汝州張公巷窯ツボゾウム資料集』, 2007.
- 陝西省考古研究所, 『五代黃堡窯址』, 文物出版社, 1997.
 _____, 『宋代耀州窯址』, 文物出版社, 1998.
-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 河北省文物研究所, 『宣化遼墓』, 文物出版社, 2001.
-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 杭州市文物考古所·臨安市文物館, 『浙江臨安五代吳越國康陵發掘簡報』, 『文物』2000—2, 文物出版社, 2000.
- 杭州市文物考古所, 『杭州老虎洞南宋官窯窯址』, 『文物』2002—10, 文物出版社, 2002.

5. 논문

- 강경남, 「坡州 惠陰院址 出土 高麗靑瓷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 구일희, 「부안군 유천리 고려도자 연구」, 『美術史論壇』 25, 한국미술연구소, 2007.
- 김미영, 「고려시대의 茶儀禮 고찰」, 목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7.
- 김부귀, 「고려 다기에 대한 연구—茶碗·茶注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
- 김애경, 「고려말기 상감청자 연구—무안 도리포 해저 출토품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 김영원, 「高麗時代 扶安 靑磁의 연구」, 『美術史論壇』 22, 한국미술연구소, 2006.
- 김은애, 「高麗時代 打出工藝品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 김은정, 「高麗時代 金銀器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 김인철, 「고려 태조 왕건 왕릉 발굴보고」,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2003.
- 김종혁, 「개성일대의 고려왕릉 발굴보고(2)」, 『조선고고연구』 2, 1986.
- 김지현, 「高麗托蓋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김진숙, 「唐代的 飲茶文化」, 『한국차학회지』 Vol.13 No.1, 한국차학회, 2007.
- 송해경, 「中國 點茶文化 發展史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 신미경, 「다사전적을 통해 본 송과 고려의 차문화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8.
- 안귀숙, 「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對中 交涉」, 『高麗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4.
- 엄혜희, 「高麗 堆花靑磁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7.
- 윤희분, 「고려청자에 보이는 금속기명의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 이은주, 「고려시대 궁정의례에 나타난 茶禮연구—연회의 접대절차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 이종민,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2.
- , 「高麗靑瓷 龍 裝飾의 樣式的 系譜와 編年」, 『역사와 담론』 제 53집, 호서사학회, 2009.
- 임진아, 「고려청자에 보이는 北宋·遼代 자기의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 장남원, 「고려시대 茶文化와 靑瓷」, 『미술사논단』 24, 한국미술연구소, 2007.
- 장동철·한성욱, 「장흥 대리 유적 출토 자기」, 『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 문화유적Ⅱ—가물막이댐 수몰지역 시굴 조사 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2002.
- 정상기, 「고려시대 금속제와 청자탁잔의 비교연구」, 『충청지역 도자연구』, 서경, 2006.
- 정신욱, 「高麗 前半期 瓷器에 나타난 中國 北方 陶瓷의 影響」,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 , 「11세기 말~12세기 전반 高麗靑瓷에 보이는 中國陶瓷의 影響」, 『美術史學』 21,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7.

- 정양모, 「三陟郡 北坪邑 三和里出土 高麗時代 遺物一括」, 『고고미술』 129·130, 한국미술사학회, 1976.
- 정재일, 「자각종색의 『禪苑清規』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
- 조기정, 「唐代 茶政 考察」, 『中國人文科學』 第46輯, 中國人文學會, 2010.
- 한성욱, 「한국 후기 청자의 성격-기형과 태토 분석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 _____, 「碩陵 出土 靑瓷의 性格」, 『江華碩陵』, 國立文化財研究所, 2003.
- _____, 「新安船 出土 高麗靑瓷의 性格」, 『地方史와 地方文化』, 歷史文化學會 10-2, 2007.
- 한성욱·김애경, 「무안 도리포 출토 상감청자의 연구」,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3
- 馬得志, 「唐代長安平康坊出土的鑲金茶托子」, 『考古』 1959-1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 孫新民, 「汝州張公巷窯的發現與認識」, 『文物』 2006-7, 文物出版社, 2006.
- 龍仁德, 「戰國漢代玉雕鸞紋的造型與紋飾研究」, 『文物』 1986-9, 文物出版社, 1986.

국문초록

잔탁은 잔의 받침으로 고려시대 초기부터 조선시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금속제·자기제·목제 등 다양한 재질로 현존한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자기질 잔탁이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는데, 받침이라는 기능에서 출발한 제작배경과 용례, ‘盞座’라는 독특한 조형적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탁은 도자사 연구에서 지금까지 단독의 주제로 연구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盞托’이라는 하나의 기종을 대상으로 기물이 사용되었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제작 동기, 그리고 조형적 양식과 편년을 문헌기록과 회화자료, 발굴성과와 전세품 등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 종합적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먼저 잔탁의 명칭은 중세 중국과 한국의 문헌기록과 명문자료에서 ‘茶托子’·‘茶托’·‘盤盞(淺)’·‘盞盤’·‘盞臺’·‘臺盞’·‘盞托’·‘盞棗(棗)’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들 명칭은 ‘托’이나 ‘臺’, ‘盤’ 등과 같은 ‘받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宋代 이후로 ‘盞托’이 등장하여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잔탁은 唐代 이후 차문화의 성행과 자기제작기술의 발전에 힘입어茶具로 사용되었고, 飲茶法의 변화와 함께 제작이 증가하였다. 고려에서도 중국 五代 越州窯의 製瓷技術이 이전되어 국내 가마터에서 자기질 잔탁의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高麗史』·『高麗圖經』·『禪苑清規』의 기록을 통해 왕실과 사원에서 국신물 및 의례기로서 잔탁의 용례 및 다른 기물과는 구별되는 위상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자기잔탁은 제작의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형태와 문양이 확인된다. 기형과 문양은 시문위치와 기법, 문양의 소재 등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시대와 기형에 따라 선호되는 문양 소재가 있고, 각 소재마다 고정된 시문위치와 기법 등이 있다. 때문에 기형의 변화에 따른 문양 표현의 시기적인 특색을 살필 수 있다. 10세기 중엽을 전후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자기잔탁은 동시대 중국 여러 요장의 영향이 지속되는 한편, 12~13세기를 거쳐 제작지가 확대되고 질적분화가 이루어져 보다 고려적인 특성을 드러내며, 고려말~조선 초 과도양식을 거쳐 조선시대까지도 새로운 양식으로 제작이 지속된다.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도자사에서 단독주제로 주목받지 못했던 고려시대 음식기물인 자기잔탁에 대해 기원과 용례 등 음식문화의 한 측면을 살펴봄과 동시에 조형의 양상과 편년과 같은 도자사적 분석 등 다양한 접근과 파악을 시도한 것으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Abstract

A Study on Ceramic Jantak(盞托) of Goryeo Period

Lee Yun-jin

Jantak(盞托), the theme of the study, were shaped like a footed plate and used as a saucer. When used with a cup as a set, it is called 'Takjan(托盞)'. The ceramic Jantak, found to have been produced in the Three Kingdoms, Goryeo, and Joseon periods, has never been researched as a separate theme, but it is a good example that shows social background, ceramic production skills, and food culture of the periods when the ceramic was produced, and the taste of people who used it. Especially during the Goryeo period, Jantak was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at kilns. The role and figurative characteristics of Jantak of the Goryeo period can be perceived through 'Janjwa(盞座)', the cup saucer.

Firstly, names related to Jantak, found in medieval Korean and Chinese documentary sources, are quite varied. The names contained characters such as 'tak(托)', 'dae(臺)' or 'ban(盤)' which means 'support', and the name 'Jantak(盞托)' seems to have first appeared sometime during the Song Dynasty and stayed in currency thereafter. Ceramic Jantak started to be produced in Goryeo kilns in the Korean peninsula, when the Yue ware technique was transmitted from China, during the Five Dynasties period. Meanwhile, from writings like Goryeosa(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Goryeodogyeong(Gaolitujiing: 'Illustrated Account of Goryeo) and Seonwoncheonggyu(Chanyuanqinggui: 'The Pure Rule for the Chan Monastery'), one learns that Jantak were exchanged as diplomatic gifts or used as ritual vessels.

Goryeo ceramic Jantak were quite varied in shape and decorative surface motifs since

early years of production. The shape of a Jantak, as it is usually closely related to the type of surface motifs, their position and the decorative techniques used, is a great indicator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r surface motifs in each period. Ceramic Jantak, produced around the middle of the 10th century, under Chinese influence, showed the influences of various different Chinese kilns. Between the 12th and 13th centuries, ceramic Jantak were produced in Goryeo, in more parts of the country, and their quality was increasingly differentiated. During this period, Goryeo Jantak also started to show more distinct lo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late Goryeo and the early Joseon period, Korean Jantak exhibited transition characteristics, and this stylistic evolution continued throughout the Joseon period.